

우리 나라의 문화재

문 화 공 보 부
문 화 재 관 리 국

리에 의하여 오늘날의 형태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法泉寺 智光國師玄妙塔)

국보 제101호, 서울특별시 경복궁(景福宮)내 소재. 높이 6.1m, 화강석으로 조성.

이 석탑은 강원도 원성군 부론면 법천리(原城郡 富論面 法泉里)의 법천사 절터에 있던 것을 한일합방 직후 일본인에 의하여 일본 대판까지 반출되었다가 반환되어 현재의 위치에 건립되었으나 6.25 동안에 포탄의 피해를 받아 파손된 것을 1957년 보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석탑은 우리나라 부도의 형식인 팔각원당형의 기본형식을 벗어나 상, 하부가 모두 방형을 이루고 있는 특수한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현존하는 묘탑중 걸작이라 하겠다.

상, 하 2단의 높은 기단 위에 탑신과 옥개석이 놓이고 제일 위에 보개와 보주가 층층이 놓여져 있는데 각부의 석재에 가득히 조각되어 있다. 특히 넓은 기대석은 네 귀퉁이에 용의 발톱과 같은 조각이 있고, 제일 위층 갑석에는 사면에 화려한 장막이 드리워져 있고 각면에는 안상, 구름, 연꽃, 초화; 보탑, 신선 등이 빈틈없이 조각되고 있으며 원래 기단 갑석 네귀퉁이에는 사자가 놓여 있었다고 한다. 탑신에는 앞·뒷면에 문버들, 좌우면에 페르시아식 영창이 구슬로 장식되어 있다. 옥개석 각면에는 장막이 느러지고 그 위에 불, 보살, 봉황 등이 빈틈없이 새겨져 있으며 상륜의 양화, 복발, 보개, 보주의 전면에 조각되었다. 이 석탑은 탑과 같이 있던 비문에 의하여 지광국사의 입적이 1085년(고려 선종 2년)임으로 이때를 전후하여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조각이 정교하며 의장이 기발하여 고려 특수형식의 부도를 대표할만 하다.